

Date: 11 Sivan 5786 (May 27, 2026)

Torah Portion: Nasso

Topic: 거리를 두는 것이 최고의 방어다

잠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잠 6:32). 성경은 단순히 그 행위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낳는 내면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무지한 자”(לֹבֵטֵי, 하사르 레브)—즉,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각과 영적 통찰력이 부패한 상태로 묘사됩니다. 사람은 현실을 온전히 자각하는 동안에는 참혹한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만약 지성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면—영혼이 야훼(YHWH)의 가까우심, 언약의 무게, 몸의 거룩함, 그리고 반역의 대가를 진정으로 깨닫고 있다면—그 행위 자체는 비이성적이고 자기 파괴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그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라고 결론지어 맞습니다.

솔로모 하멜레크(솔로몬 왕)는 음녀에 대해 이 개념을 더욱 확장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잠 9:16). 죄의 유혹은 주로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 즉 스스로를 지키기를 멈춘 마음에 호소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잠 9:17). 죄는 항상 왜곡을 통해 자신을 위장합니다. 그 달콤함은 일시적이며, 감추어짐은 기만적입니다. 성경은 즉시 숨겨진 진실을 들추어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Sheol; 지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잠 9:18). 즐거워 보이는 것은 사실 영적인 죽음을 향한 추락입니다.

미드라시와 탈무드는 이 원리를 토해 인류학(Torah anthropology)의 근본적인 통찰 중 하나로 발전시킵니다. 소타(간음이 의심되는 아내)에 관하여 토라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민 5:12). 사제들(Sages)은 ‘탈선하다’를 뜻하는 단어 תִּשְׁטֶה (티스테)를 ‘미련함’을 뜻하는 תִּטְשֵׁ (세투트)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탈무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사람은 미련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는 한 범죄하지 않는다” (Sotah 3a).

이 선언은 단순한 심리학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는 심오한 신학적 계시입니다. 인류는 야훼의 형상, 즉 מִבְּצֵלְמַיִם אֱלֹהִים (베헬렘 엘로힘)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 1:27). 인간은 도덕적, 영적 의식인 다아트(da'at)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존재가 자신의 창조주에게 고의로 반역할 수 있겠습니까? 사제들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죄를 짓는 순간, 지각이 흐려집니다. ‘미련한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인은 현실, 영원, 심판, 그리고 결과에 대한 명확성을 일시적으로 상실합니다.

조하르(Zohar)는 ‘시트라 아흐라’(sitra achra, 다른 한편/악의 세력)가 거룩함의 빛을 가리고 영혼과 신성한 자각 사이를 분리할 때 죄가 생겨난다고 설명합니다. 유혹은 시야를 좁혀 당장의 욕망이 영원한 진리를 가리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은 더 이상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쓰라리게 여겨야 할 것이 달콤하게 보이고, 치명적이어야 할 것이 무해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경고한 이유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 5:20). 죄는 지각 자체를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는 한 가지 중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사람이 미련한 영에 사로잡혀서만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자유 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센 바람이 불어 어떤 사람을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렸다면, 우리는 그가 떨어진 것을 두고 그 사람을 탓합니까? 토라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하지만 그가 바람에 밀려 날아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절벽 가장자리 가까이에서 있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 의지는 종종 실제 죄를 짓는 순간보다 훨씬 이전에 작용합니다. 사람은 어떤 영향력을 수용할지, 어떤 환경에 들어갈지, 어떤 욕망을 키울지, 어떤 생각을 품을지, 그리고 어떤 경계선을 허물지 스스로 선택합니다. 유혹이 온전한 힘을 얻을 때쯤에는, 결정적인 싸움에서 이미 패배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련한 영’은 사람이 자신을 향해 문을 열어준 곳에서만 권세를 얻습니다.

사제들이 다음과 같이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타(탈선한 여인)의 수치를 보는 자는 누구나 나실인 서원을 하여 포도주를 멀리해야 한다” (Sotah 2a). 죄에 대항하는 토라의 전략은 반응적이기보다 예방적입니다. 거룩함은 유혹이 완전히 무르익기 전에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거리를 둘 것을 요구합니다. 불속에 들어선 후에야 도망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라는 이러한 거리두기의 원리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출 23:7). “토라 주변에 울타리를 치라” (피르케이 아보트 1:1). 의인은 마지막 순간에 악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악의 영향력 범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도록 삶을 구조화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의인인 요셉의 탁월한 공적을 명확히 밝혀줍니다. 미드라시 테힐림은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시 114:3)라는 구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해합니다. 바다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다는 요셉의 관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망친 자 앞에서 바다도 도망치게 하라.”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친 요셉의 도피는 훗날 이스라엘 앞에서 흥해 자체가 갈라지게 만든 영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이는 의아해 보입니다. 요셉은 이미 유혹에 저항한 것에 대해 엄청난 보상을 받았습니다. 베레시트 랍바는 죄를 거부한 그의 몸의 모든 지체가 그에 상응하는 영예와 격상을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왜 그의 ‘도망침’이 이토록 독보적인 공적으로 여겨졌으며, 한 민족 전체의 구원과 연결될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졌을까요?

그 답은 요셉이 행한 행동의 진짜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지성적으로 유혹을 거부하는 것은 한 단계의 의로움입니다. 육체적으로 유혹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또 다른 단계입니다. 요셉은 유혹에 대한 승리가 단순히 단 한 번의 마주침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창세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가매” (창 39:12). 요셉은 아마 그 옷을 붙잡아 빼앗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유혹의 대기 속에 단 한 순간도 머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유혹의 분위기 속에 머무는 매 초마다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옷은 버릴 수 있는 것이었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하르는 요셉을 예소드(Yesod, 언약의 순결함과 영적 기초)의 화신으로 묘사합니다. 그의 위대함은 단순히 자제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거룩함이 때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후퇴를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때로는 악과 서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도망치는 것이 가장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공적이 평범한 보상을 넘어선 이유입니다. 그의 도망침은 모든 세대를 위한 영적 패튼을 세웠습니다. 구원은 부정함으로부터의 분리를 통해 옵니다. 요셉이 타락으로부터 도망쳤듯이, 훗날 바다도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원리(Measure for measure)에 따라, 피조물 자체도 타협을 거부하는 거룩함의 권능에 반응한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다윗은 선언합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시 101:3). 바울은 기록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딤후 2:22). 성경은 유혹과 ‘싸우라’고만 하지 않고, 자주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들은 지혜가 때로는 싸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는 정면 반역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죄는 가까이함—작은 타협, 용인된 영향력, 방치된 생각, 영적인 부주의함에서 시작됩니다. ‘미련한 영’은 서서히 들어와 결국 명확성을 흐려놓습니다. 그러므로 토라는 무너지기 훨씬 전부터 깨어 경계할 것을 명령합니다.

따라서 거룩함의 길은 단순히 악한 행위를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명확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눈, 마음, 심령, 그리고 환경에 들어오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절벽에서 떨어진 후가 아니라, 절벽 앞에 울타리를 세워야 합니다. 죄와의 싸움은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매일 영혼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샬롬.